

[황인숙] 사랑의 황무지

아침 신문에서
느닷없이 마주친
얼굴, 영원히 젊은 그 얼굴을 보며
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
칼로 베인 듯 쓰라린 마음

오래전 죽은 친구를 본 순간
기껏
졌다, 내가 졌다, 졌다, 는 생각
벼락처럼

그에겐 주어지지 않고 내게는 주어진 시간
졌다, 이토록 내가 비루해졌다

졌다, 시간에
나는 졌다.

[안도현] 가마우지

해안선을 잘 엮어서 어머님께 보여드리자

밤새 젖은 모래톱 한 두름 꾸덕꾸덕하게 말려 굵고
시끄러운 파도 소리 살짝 볶아 쟁반에 담아서
어머님의 서러운 아침 밥상에 올리자

해안선을 올리자 어머님을 위하여
허공을 깎아 만든 절벽의 집으로도 가지 못하고
바다의 밑바닥으로도 이제 갈 수 없는
검은 해안선에 몸이 감긴 어머님

최대한 목을 길게 빼고
가마우지, 가마우지 공중에서 울자

[박라연] 그것도 사랑이라면

나지막하게 불러도
금방 뒤돌아보는 달의 골목마다

꽃들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한 증거처럼
환하게 피어나는
도화에게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다

온몸이 눈동자여서다

꽃들이
사람을 알아보기 가장 좋은
달력에 끼워져서

해마다
이 세상에 저를 내미는 것은
간절히
전할 말이 있어서라는 듯

[장경린] 블랙 먼데이 4

502 호가 외출하나 보다
문이 닫히는 자동 잠금장치 소리에 이어서
방울 소리가 들린다
502 호가 개와 함께 산책을 가나 보다

집만 나서면 아파트가 떠나갈 듯
사납게 짖어대던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진 뒤로
내 머릿속은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졌다
정적이 짖어대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눈에 선해
문밖의 그 헛것에 더욱더 긴장하게 되었다
이 글거리는 눈망울
움켜쥔 주먹처럼 딱이 된 털뭉치들
허공을 물어뜯으며 울부짖지만
성대가 제거되어 쉼 소리 하나 토해내지 못하고
축 늘어지는 헛바닥

야심한 밤
502 호 연금생활자가 종일 시간만 죽이다가
개를 끌고 나가는 산책길
성대가 제거된 개가
현실이 제거된 502 호를 끌고 나가는 산책길

환상통을 서로 교감하게 된 것일까
밤거리를 배회하고 돌아오는 방울 소리가
오늘따라 낭랑하다

[황병승] 궁극의 애정신 scene

복도에는 표정 없는 흰 전등이 매달려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치웠고 구도를 다시 짰다

연인들은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내면연기를 펼쳐야 했다
발밑에 떨어진 압정처럼 어떻게든 힘을 주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배우들은 끝내 우리가 원하는 옳은 방향을 찾아내지 못했다
잔인한 표정을 놓쳤고 밤과 낮 상처와 흉터
눈물과 콧물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결국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컷

복도에는 흰 전등이 다시 매달렸고
불빛 아래 드러나는 한심한 표정의 얼굴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등줄기를 타고 질 질 질 진땀이 흐르는 새벽

꼬챙이로 심장을 쏘시는 아티스트가 필요한데……

[김영남] 반딧불이에 시그마 붙이며

깜박깜박하는 자, 난해하구나

수학공식처럼

낮선 곳에 와서 풀고 있는 그대의 수열

함수관계가 허공에 쓰인다

또박또박 징검다리 놓으며 극한에 닿으니

풀벌레 울음도 달빛에 눌러 지평선으로 수렴한다

거기, 그대가 다스리는 국가가 있고

나라의 법과 변방도 평화롭구나

그래, 이런 평화의 무한대 발산이란 어디까지를 포함해야 하느냐

지금 저 별들에 시그마를 붙이고 있는 자는?

생각 띄엄띄엄 날아 진동하게 하니

허공도 난해하지 않게 깜박이는구나

사랑의 해해도 새롭게 구해지는구나

[박형준] 입술

봄날 대낮
공기의 셔랍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냄새 맡아요
따끈하게 데워진 술이
이슬로 내리는 햇살 사이 걸어갈 때
입술로만 말을 해봅니다
미래의 문들이 달린 창공을 향해
뿔나팔을 분담니다
가냘픈 바람의 허리를 붙잡고
당신의 귀밑에 부어넣어지는
밀어의 전언을 느껴보세요
거리를 향해 심호흡을 하고
조율한 휘파람을 날려보냅니다

당신의 옷자락에 살랑이는,
입술의 언어를 느껴보세요

[이제니] 단 하나의 이름

얼어붙은 종이 위에서 나는 기다린다
얼음의 결정으로 떠오르는 기억의 물처럼
발설하지 않은 이름을 대신할 풍경이 몰려올 때까지

월요일에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지
아니 화요일 아니 수요일 아니 목요일 아니 금요일
이미 잃었는데도 다시 잃고야 마는 요일의 순서들처럼
수면양말에 담긴 너의 두 발은 틀린 낱말만 골라 디뎠지

이곳은 너무 어둡고 너무 환하고 텅 빈 채로 가득 차 있다
이 흰색을 이 검은색을 고아라고 부를 수도 있을까

사랑하는 나의 고아에게
오늘의 심장은 어제의 심장이 아니란다
건초더미라는 말은 녹색의 풀이 한 계절을 지나왔다는 말
세계의 끝으로 밀려난 먼지들의 춤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리가 되기 위해 모음이 필요한 자음들처럼 이제 그만 울어도 좋단다

말없는 자매들처럼 돌아누워 나누는 애도의 목례

검은 종이 위에 검은 잉크는 이름 하나를 흘려 쓴다

아득히 맴도는 이름: 너를 부를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
흑연의 어조로 천천히 닳아가는 이름: 우리는 함께 혼자였다
입 속에서만 부풀려온 단 하나의 이름: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아껴야만 했다

언제나 나는 도착하고 싶었다
도착한 순간조차도 도착하고 싶었다

이대로 얼마나 오래 태양을 바라볼 수 있을까
고개를 돌리면 작고 둥근 흑점으로 번져가는 얼굴
나란히 누워 눈멀던 날들의 빛은 어디로 사라졌나

세계의 끝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녹고 스미는 것들이 두 눈 가득 차오른다
나는 이상하고 푸르스름하게 살아 있다

[박상순] 나는 네가

나는 네가 시냇물을 보면서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냇물이 흐르다가 여기까지 넘쳐 와도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목련나무 앞에서 웃지 않았으면 좋겠다
흰 목련 꽃잎들이 우르르 떨어져도 웃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밤 고양이를 만나도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밤 고양이가 네 발목을 물어도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밖의 봄벌 때문에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영롱한 바닷속을
헤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인공 딸기향이 가득 든 고무지우개면 좋겠다.
인공 딸기향을 넣은 딱딱한 고무로 만든
그런 치마만 삼백육십육일 입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오래도록 우울하면 좋겠다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너를 닮은
물렁물렁한 시냇물, 우르르 떨어지는 큰 꽃잎들,
달빛 아래 늘어진 길고 긴 밤 고양이의 그림자,
꿈속의 바다. 그리고 고무지우개.
그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웃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세상에 네가 없을 때에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 네 모든 것에 어찌할 수 없도록 엄매인
불행이라면 좋겠다.

[김영승] 부메랑

부메랑이 왜 돌아오냐 부메랑은
짐승을 잡는 도구 짐승을 때려
잡는 도구다 던지면 즉사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다 돌아오는 부메랑은
잘못 던진 부메랑
부메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부메랑은
실수를 확인하고 자인하고
허 탈히 집에 가기 위한
참회의 도구 실수를 대비한
도구가 아닌 포기의
도구 굴복의 도구 나의

부메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단 한 번 단 한 발의
부메랑은 내 손을 떠나
일물일시一物一矢처럼 정확하게

즉사시킨다 돌아오는
부메랑은 잘못 던진
부메랑이면 부메랑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미
그리고 온통
다 잘못된 마음이다 부메랑은

최대의 겸손
자비

잘못 던진 부메랑은 돌아와
내 고향을
내 두개골을
관통시키리 파열시키리
박살 내리 그게

부메랑을 만든 뜻이며
자기가 만든 그 부메랑과의
약속이다 내가

던진 부메랑은
짐승을 관통하고 회전하여
우주로 날아간다

나는 그 짐승을 들쳐메고 돌아와
먹는다 은하수 평평 쏟아지는 밤

그 칭송과 찬양의 별빛이
그 부메랑이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내 부메랑을

던지게 하지
말게 하라

나는 단 한 번이다

[김경미] 연애의 횡수

그 나라 입국할 때는 써넣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밤의 횡수를

식초를 식초에 타서 마신 밤 알코올을 촛불에 태워 마신 밤
눈 찻의 검은 눈물자국 베개를 지나 귀로 흘러든 밤

非常時 문을 여세요, 쓰인 비행기 비상문을
한 아이가 열 뻔했다는 밤 모르는 한자 때문에
하늘에서 비행기 문 열릴 뻔한 비상시의 밤
더는 읽을 수 없는 해독불가의 그대라는 실종의 밤
음식 버리면 죽어서 다 먹어야 한하는데 곧 심장 멎으리
그때 굶지 않도록 음식들 미리 버려둔 밤

버렸는데도 마구 체해 얼굴 노래진 밤 손톱으로
바늘을 따는 밤 피가 없어 솟구치지 않는 밤

버지니아 울프가 길에서 만난 친구 딸에게 물었다는 밤
너 나랑 두꺼운 지우개 사라 갈래? 그동안 쓴 소설들 다 지우게
울프 주머니에 돌멩이 넣고 강으로 데려가고
보름달 같은 국산지우개 내주면서 미칠 테면 미치라는 밤
그러니까

이별의 횡수,

그 예술의 순간으로써
저마다 모양과 부피 다른 지도를 나눠주는 게
그 나라 출국하는 방식이라 합니다

[이수명] 그 집에는

그 집에는
눈처럼
떨어지고 있는
계단들이 있다.

눈처럼
수평으로 이동하는
눈처럼 백발이 되어버린
계단들이 있다.

검은 사이렌처럼
허공을 내 발들로 채우고

그 집에는
눈처럼
녹고 있는
계단들이 있다.

[남진우] 화염국

이 나라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불길로 되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머리에 이고 길을 오갑니다. 사람들은 담배에 불을 붙이거나 벽난로에 불을 피우려 할 때 성냥을 찾는 대신 머리를 숙이고 가져다 델 뿐입니다. 어둠이 내린 다음에도 밤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밝게 빛나는 머리카락의 덩불이 사방을 환히 비추어주니까요. 오직 잘 때에만 잠시 불이 잦아들어 반들반들한 머리를 베개에 누이고 꿈에 빠져듭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에는 입술 대신 이마를 맞댁니다. 햇불처럼 타오르는 머리가 서로를 휘감고 평소보다 더 높이 치솟아오르면 두 사람의 사랑은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꽃나무가 늘어서 있는 거리를 그들이 달려갑니다. 밤하늘에 축포처럼 불꽃이 터지고 불의 깃털을 문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비가 오는 것입니다. 우기가 되면 이들은 집에 틀어박혀 타오르는 머리를 감싸쥐고 빗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지루한 장마가 그치고 나면 이글이글 불꽃이 이는 머리를 한 남녀들이 일제히 거리에 쏟아져나와 누군가를 찾아 부지런히 쏘다닙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요? 한 번 누군가에게 빠져보세요. 당신 또한 머리 위로 뜨거운 불길을 뿜어내며 몇 날 며칠 광활한 화염국을 정처 없이 헤매게 될 것입니다.

[위선환] 월식

손가락을 세워서, 삼촌은 눈을 찔렀다. 두 눈을 움켜쥐고 저수지로 걸어 들어간
삼촌의
물이 찬 뱃속에는 물에 젖은 보름달이 들어 있었다.

뒤따라 걸어 들어간 여자는 사지를 벌리고 누워버렸다. 건져 올린 여자의 속눈썹엔 서리 내린 듯 달빛이
묻어 있었지만
정작은, 거의 베어 먹어서
눈썹같이 휘인 잔영만 남은 달이
여자의 잇바디에 물려 있었다.

옛적에 가읍신 선인들께옵서도 달님을 젓수시었겠지요? 家系의 암흑과 빠져 죽는 내력에 대하여는
대답 못한다.

내 차례가 왔다. 며칠째 저수지를 배회했지만, 나는 눈이 어둡고 물은 깜깜해서
걸어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無明이 나를 살찌웠다. 사실 나는 눈초리까지 살이 찼다. 나의 찐 살은 나를 가리었고, 지금은 훨씬 찐
살이
달을 가리고 있다. 나는 암흑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송찬호] 소금창고

돈 떤 먹고 도망간 여자를 찾아
물어 물어 여기 소금창고까지 왔네
소금창고는 아무도 없네
이미 오래전부터 소금이 들어오지 않아
소금창고는 텅 비어 있었네

나는 이미 짐작한 바가 있어,
얼굴 흰 소금신부를 맞으려
서 쪽으로 가는 바람같이
무슨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온 건 아니지만,

나는 또, 사슴 같은 바다를 보러 온 젊은 날같이
연애창 고인 줄만 알고
손을 잡고 뛰어드는 젊은 날같이
함부로 이 소금창고를 찾아온 것도 아니지만,

가까이 보이는 바다로 쉽 없이 술들의 배가 지나갔네
나는 그토록 다짐했던 금주禁酒의 맹서가 생각나
또, 여자의 머릿결 적시던 술이 생각나
바닷가에 쭈그리고 앉아 오랫동안 울었네

소금창고는 아무도 없네

그리고 짜디짠 이 세상 어디인가
소금같이 뿌려진 여자가 있네

나는 또, 어딘가로 돌아가야 하지만
사랑에 기대는 법 없이
저 혼자 저렇게 낡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여기 소금창고 뿐이네

[최문자] 껍질의 사랑

사랑에 빠질 때
껍질이 있는 건 축복이죠
누구나 이 축복을 까보고 싶어하죠
찢고 비틀고 지지고 쪼개고 후벼 파면서 무섭게 사랑을 까보죠
껍질이 벗겨진 사랑은 죽어 있죠
하얗고 까맣고 누렇게 죽어 있죠
껍질이 깨지면 허망의 즙들이 흘러내리죠
축복이 사라진 것들을 사랑했죠
하얗게 눈을 뜨고 죽은 흰 쌀밥 같은
입을 딱딱 벌리고 죽은 조개들 같은
랍스터 등짝을 쪼개고 파낸 흰 속살 같은
껍질보다 주검을 더 사랑했죠
껍질들은 안으로 몸을 잔뜩 오므리고 있죠
팽팽하게 가슴 쪽으로 핏줄을 잡아당기죠
껍질의 가슴이 찢어질 때까지 잡아당기죠
온몸을 끌어 덮으려다 찢어진 껍질이죠
조금씩 사라져가던 껍질이 축복일 줄 몰랐죠
껍질에 닿으려고 팔을 뻗어보지만
자꾸 헛손질하죠
사랑에 빠질 때
껍질이 남아 있는 건 축복이죠
이미 나에게도 새 뿌리가 나오고 있죠
조금씩 가슴이 찢어지고 있죠

[황성희] 실연

천리동 서울여관. 수배자들의 낯선 얼굴이 촘촘히 박힌 벽. 파란 셀로판지로 별을 만들어 붙인 안내실 창문. 동글게 닳은 여자. 혼자세요? 갈라진 뒤꿈치로 운동화를 꺾어 신고 안내한 205 호. 목욕탕도있어요. 크기가 짝짝이인 검은 슬리퍼. 휴지통 바닥 꾸덕꾸덕 말라붙은 휴지. 털이 엉켜 새까만 하수구. 더울사람진짜없죠? 문짝이 떨어져나간 장식장 위로 텔레비전. 둥근 여자는 선불을 받자 생긴건이래도잘잠겨요 돌아서 나갔지만. 손잡이는 부서져 있었다. 아득한 그 언젠가처럼.

전등갓 속 가무스름 감혀 죽은 날벌레들. 내일을믿은게사실인가요. 벽지의 얼룩은 여전히 나비처럼. 누가먼저손을잡았죠? 옷장의 서랍은 위아래가 서로 어긋난 채. 그때거울속에서무슨소리를봤나요. 나는

분명 현재 속에 있었지만 우린한집에서같이씩기로했습니다 속삭이던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가방 속에는 온종일 쥐고 다니던 낡은 눈동자 한 쌍. 지겹게 울리는 전화기 속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이불을 들춰 바싹 마른 음모 몇 개를 털어낸다. 창밖으로 두런두런 녹지 못할 밤이 점점 내려 쌓인다. 얼굴 어딘가에서 물기가 번져나온다. 잔인한 설득처럼 시계는 멈추지 않고 나는 나를 조금씩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게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나간 시간 속을 뒤지는 것 말고는.

[허수경] 수수께끼

극장을 나와 우리는 밥집으로 갔네
고개를 숙이고 메이는 목으로 밥을 넘겼네
밥집을 나와 우리는 걸었네
서점은 다 문을 닫았고 맥줏집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었네

안녕, 이제 우리 헤어져
바람처럼 그렇게 없어지자
먼 곳에서 누군가가 북극곰을 도살하고 있는 것 같아.

차비 있어?
차비는 없었지
이별 있어?
이별만 있었지

나는 그 후로 우리 가운데 하나를 다시 만나지 못했네
사랑했던 순간들의 영화와 밥은 기억나는데
그 얼굴은 봄 무우순이 잊어버린 눈썹처럼
기억나지 않았네

얼음의 벽 속으로 들어와 기억이 집을 짓기 전에 얼른 지워버렸지
뒷모습이 기억나면 얼른 눈 위로 떨어지던 빛처럼 잠을 청했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당신이 만년 동안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네
내가 만년 동안 당신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붙들고 있었네
먼 여행 도중에 죽을 수도 있을거야
나와 당신은 어린 꽃을 단 눈먼 동백처럼 중얼거렸네

노점에 나와 있던 강아지들이 킁킁거리는 세월이었네
폐지를 팔던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지하도를 건너가고 있는 세월이었네
왜 그때 헤어졌지, 라고 우리는 만년 동안 물었던 것 같네
아직 실감나지 않는 이별이었으나
이별은 이미 만년 전이었어

그때마다 별을 생각했네
그때마다 아침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던

다리 밑에 사는 거지를 생각했네
수수께끼였어,
당신이라는 수수께끼, 그 살肉 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 진 대륙들은
회빛 산맥을 어린 안개처럼 안고 잠을 잤을까?

[이문재] 태양계

비행기가 착륙할 때 보았다
8 천 미터 상공에서 잃어버렸던
자기 그림자를 활주로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히말라야를 넘거나
태평양을 종단하는
철새들도 마찬가지로
땅이 가까워지면
서둘러 제 그림자부터 찾는다

하늘 높이 솟아오르기만 하거나
앞으로 미래로만 달려나가면
제 그림자를 볼 수가 없다
자기 그림자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나의 그림자
밤은 낮의 그림자
내일은 어제의 그림자
빠앗긴 그림자를 되찾아야
너와 나 지금 여기가
길고 넓고 높고 깊어진다

그림자는 땅에 있다
모든 그림자는 지구에 있다

[맹문재] 사과를 내밀다

1
마을의 골목을 돌아 나오는데
담장가에 달려 있는 사과들이 불길처럼
나의 걸음을 붙잡았다

남의 물건에 손대는 행동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만
한번 어기고 싶었다

손 닿을 수 있는 사과나무의 키며
담장으로 친 양중한 꽃들도 유혹했다

2

콧노래를 부르며 골목을 나오는데
주인집의 방문이 열리지 않는가

나는 깜짝 놀라 얼른 사과를 허리 뒤로 감추었다

마루에 선 아가씨는 다 보았다는 듯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꼼짝없이 도둑놈이 되었구나…… 눈을 감았다

3

눈을 떴을 때, 다시 놀랐다

젖을 빠는 새끼를 내려다보는 어미 소 같은 눈길로 할머니는
사과를 꺾고 있는 것이었다

4

나는 감추었던 사과를 내밀었다, 선물처럼

[이사라] 둥근 반지 속으로

봄별이 내려앉는 창가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인 듯 한 사람인 듯
눈동자 속에 둥근 집 한 채 짓고
눈빛 속에 눈물 속에
눈뜬 꿈 둥글게 두고 싶다

둥근 세상과 한 몸으로 철철이 물들어
눈 밖에 나는 일 없으면 좋겠다

딱딱한 것 깨고 나와
알고도 모르는 척 다시 세상 살면서
온 마음이 온 마음에게 부딪쳐도 즐겁게 쓸리는
여느 봄날같이
가지 끝의 연륜이 가벼울수록 팔랑팔랑 안타까운 봄날같이
사랑했던 사람들 다시 파릇한 봉분에서 피어오르는 봄날같이

이렇게 둥근 눈으로 마주 보며

말 못하고 피 마르는 고통도
오래될수록
씨눈 된다는 말, 이젠 믿는다
사랑은 말없이 동글다며
누구나 말없이 단풍 들고 낙엽 지고
누구나 말없이 봄별 들고 새순 돋는다는 말, 정말 믿는다

동글게 세상 담은 반지 속으로
사람들 자꾸 들어간다

[이성부] 어느 사이 속보速步가 되어

걷는 것이 나에게서 사랑 찾아가는 일이다
길에서 슬픔 다독여 잠들게 하는 법을 배우고
걸어가면서 내 그리움에 날개 다는 일이 익숙해졌다
숲에서는 나도 키가 커져 하늘 가까이 팔을 뻗고
산봉우리에서는 이상하게도 내가 낮아져서
자꾸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멀리로만 눈이 간다
저어 언저리 어디쯤에 내 사랑 누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꽃망울 터뜨리며 웃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소곳이 앉아 나를 기다릴 것만 같아
그를 찾아 산을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솟구치지 않느냐
먼 곳을 향해 떼어놓는 발걸음마다
나는 찾아가야 할 곳이 있어 내가 항상 바쁘다
갈수록 내 등짐도 가볍게 비워져서
어느 사이에 발걸음 속도가 붙었구나!

[허만하] 사랑의 별빛

가슴으로 안고 있는 젓먹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어머니 시선이 소리 없이 내리는 눈송이처럼 조용하다.
그 시선에 회초리를 건너는 바람 소리 얼어붙는 계절에 피는 야생의 수선화 향기가 잠시 서리는 것은
언젠가 아이가 맞이할 고난을 자신의 쓰라림으로 실감하는 그 순간이다.

어머니는 영하의 온도에서 불타오르는 별이다. 우러러보기에는 너무나 친숙하고, 친숙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별. 슬픔과 결의가 함께 깃들어 있는 어머니 표정은 한정 없이 침착하다. 아, 일곱 가지 슬픔의
어머니.

바다가 푸른 하늘의 높이를 비추는 거울인 것처럼, 마음의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득히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되는 일을 사람들은 때로 사랑이라 부른다.

[김명리] 기억의 집

바람 소리 세차다
현관 등이 켜진다 이 깊은 밤
아무도 찾아올 리 없는 산등성이 집
때맞추어 비 내린다는
시우리時雨里 산간마을에
시간의, 아주 먼 데서부터 누군가 찾아온 듯
현관의 센서 등이 저절로 깜박이고 있다
양상한 겨울나무의
더 깊은 속엿말을 찾지 못한 새들의
들릴 듯 말 듯 허공을 울리는 차임벨 소리
망연히 눈 감으면
한 떼의 새들의 텅 빈 눈자위 가득
드라 이아이스로 떠다니는 밤구름들
아득히 바스러지는
마른 꽃잎 같은 기억들 사이로
시간의 청결한 눈목들이
밤 의 등빛 속을 위태롭게 난다
산약山藥 같은 비 냄새 흠씬 풍긴다

[김광규] 물기 (2)

생전에는 미처 몰랐다
그가 떠난 뒤 그러나
조그만 두 눈에서
웬 눈물 이처럼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지
비방과 욕설과 고함 쏟아내던
그 험한 입들 온통 일그러지며
웬 울음 이처럼 억누를 수 없이
터져 나오는지
눈 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혼 자서 기도할 수도 없어
수십만 인파가 조용히 모여들었다
실핏줄 깊숙이 스며들어
가슴속으로 하염없이 번지는
눈 물과 울음
아낌없이 그가 나누어 주고 간
사랑의 물기
아닐까

[김혜수] 덕장

담장 안 빨랫줄에
며칠째 건지 않은 겨울빨래가 널려 있다
마 르기도 전에 얼다 녹다
다시 얼어붙은
미처 건지 못한 빨래 위로 눈발 날린다

맛이 깊고 육질 뛰어난 황태가 되기 위해선
추위와 바람 속에서 거듭
얼었다 녹았다 해야 한다
담장을 넘지 않으려 애면글면
다시 얼어붙은 눈물은 단단하다

영하의 공중에 가람이 벌린 채
내복 바람으로 오래도록
벌 서는 가족들

가출한 당신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벗어두고 간 팔다리
저 혼자 펄럭이다가
줄 위에서 부르르 떨며
눈발 속에
물구나무 선 채

[강성은] 검은 호주머니 속의 산책

손이 시려서 너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눈이 펄펄 날리고 있어서
나의 한 손을 거기 넣었다
그 캄캄한 곳에 너의 손이 있어서
나의 한 손을 거기 넣었다
그 날 우리는 걸어서 어디로 갔나

두근거리는 손 때문에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흰 눈이 내리는데 햇빛이 환한데
낮선 곳에서 길을 잃었는데
심장이 된 손에 이끌려
우리는 쉬지 않고 걸어서 어디로 갔나

우리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잡은 두 손을 놓은 적이 없는데
호주머니 속에서
불안은 지느러미를 흔들며 헤엄쳐 다니고
그림자로 존재하는 식물들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다

우리 두 손은 검게 썩어 들어갔다

어째서 너의 손은 이토록 비릿하고 아름다운가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검은 피가 흘러나와 우리 발목까지 적실 때에도
우리는 이토록 생생한 봄을 상상했다

언젠가 우리는 각자 다른 계절을 따라 사라졌지만
호주머 니 속에는 아직도 폐허의 공터에
날카로운 손톱으로 서로를 깊숙이 찌른 두 손이
펼 펼 날리는 흰 눈을 맞고 서 있다

[정진규] 겨우살이

내 사랑 겨우살이 한번 풀어보려고 겨우살이 찾아, 즉효라는 그걸 찾아 눈 덮인 심산 들었다 참나무
뽕나무 오리나무에 붙어살지만 겨울날 홀로 초록 잎새 싱싱한 독야청청 겨우살이, 나 좀 살려 다오 내
후살이로 조심조심 들어앉혔다 네 몸 달이여 나를 깊게 뒹눴으나 아직도 여적지다 너나 나나 아직도
겨우살이다 내 사랑 겨우살이 아직도 여적지다 몰랐었구나 사랑이 본시 겨우살이인 것을, 후살이가 본시
겨우살이인 것을, 습歡이여, 철든 사랑아

[최정례] 생각의 까마귀떼라

나의 밤이 너에겐 낮이고
너의 낮이 나에겐 밤이라

우리 사이엔 거대한 태평양이
누워서 파도친다

끝도 없이 캄캄한 해안가로
난폭하고 순결한 물결이
무슨 뜻을 품고 굽이쳐 오는 것만 같은데
사실 무슨 뜻이 있겠는가

내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너를 향해
전화기를 들었다 놓는 것과 같다

잠시 다른 밤 다른 낮을 살고 있는
남의 나라에서

내 나라를 향해 한껏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서 밀려오는데

셀 수도 없는 네가 거기 떠올랐다 가라앉는다
파도에 굴러다니는 태초부터의 자갈돌처럼

생각의 까마귀떼라
얼굴도 몸통도 어깻죽지도 두 팔도 무너지면서

[문혜진] 물이꾼과 저격수

돌능금 나무동치에 세들어 살고 싶었던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 고여 있어 그 목소리는 바다에 내리는 눈, 적도의 만년설, 얼음집 내벽 녹았다 다시 얼어붙은 물방울, 너는 잠시 빛나고 나는 적막을 품고 허기의 기록들이 마침내 느슨하게 흐르고, 달빛의 윤곽 너머 안개 낀 밤의 아늑한 사라짐들, 반역들, 불분명한 용서들 고대이자 후대인 바람의 화석이 무수한 시간의 문을 찢고 떨리는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올 때,

우리는 서로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겨냥하는 자와 숨는 자, 서로의 지형도를 숨긴 채 표적을 향해 달려들지만 대열은 흩어지고, 표적은 간 데 없고 게릴라성 호우와, 수치심에 대해 바람의 일행으로 다만, 먼 훗날 빙하에 갇힌 채 얼어버린 바람의 혈전으로 내 사랑의 저격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나희덕] 새는 날아가고

새가 심장을 물고 날아갔어
창밖은 고요해
그래도 나는 식탁에 앉아 있어
접시를 앞에 두고
거기 놓인 사과를 베어 물었지
사과는 조금 전까지 붉게 두근거렸어
사과는 접시의 심장이었을까
사과 씨는 사과 심장이었을까
둘레를 가진 것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담겼다 비워지지
심장을 잃어버린 것들의 박동을
너는 들어본 적 있니?
둘레로 퍼지는 침묵의 빛,
사과를 잃어버리고도
접시가 아직 깨지지 않은 것처럼
나는 식탁에 앉아 있어
식탁과 접시는 말없이 둥글고
창밖은 고요해
괄호처럼 입을 벌리는 빈 접시,
새는 날아가고
나는 다른 심장들을 훑치고
둘레를 가진 것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만났다 헤어지지

[김혜순] 생일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 가시가 가득해요
음악을 들을 땐
스피커에서 가시가 쏟아져요
나 걸어갈 때
발밑에 떨어져 쌓이던 가시들
아무래도 내가 시계가 되었나 봐요
내 몸에서 뿜죽한 초침들이
솟아나나 봐요
그 초침들이
안타깝다
안타깝다
나를 찌르나 봐요
밤이 오면 자욱하게 비 내리는 초침 속을 헤치고
백 살 이백 살 걸어가 보기도 해요

저 먼 곳에
너무 멀어 환한 그곳에
당신과 내가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당신 생일날
그 초침들로 만든 케이크와 촛불로
안부 전해요

[문정희] 사람에게

사람을 피해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그리워한다
사람, 너는 누구냐
밤하늘 가득 기어나온 별들의 체온에
추운 몸을 기대다
한 이름을 부른다
일찍이 광기와 불운을 사랑한 죄로
나 시인이 되었지만
내가 당도해야 할 허공은 어디인가
허공을 뚫어 문 하나를 내고 싶다
어느 곳도 완벽한 곳은 없었지만
문이 없는 곳 또한 없었다
사람, 너는 누구냐
나의 사랑, 나의 사막이어
온몸의 혈액을 짜서 시를 쓴다
사람을 피해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그리워한다
별처럼 내밀한 촉감으로
숨 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아름다우냐

[장옥관] 허브 도둑

『난초 도둑』이란 소설도 있지만 정말 허브를 도둑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들새들한 게 안쓰러워 거름 주고 햇볕도 주려 복도 끝 창가에 내놓았지요. 그런데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화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기막히고 허탈했지만 이내 맘을 바꿔먹고 짧은 쪽지를 써붙였지요.

이 자리에 놓여 있던 화분을 가져가신 분께

아마 저보다 더 그 꽃을 사랑하실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거름을 넣어주었으니 6개월 안에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디 그 꽃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화분이 돌아왔습니다. 불일 마치고 오니 그 자리에 화분이 머쓱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써붙인 쪽지 떼어내고 이런 쪽지를 붙여놓았더군요.

이 화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께

이 화분이 잠시 새로운 지평선이 보고 싶어서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 돌아왔으니 행복하다고 하네요. ^^

배수로에 엮드려 하의 벗긴 채 발견되지 않고 말짱하게 돌아온 허브의 알리바이가 기적 같았습니다. 올봄 허브꽃은 아무래도 끼끗한 속옷 빨래처럼 희디희게 피어나겠습니다. 축축한 골짜기마다 굴러다니던 막돌에서 하얗게 난초꽃도 빠져나오겠습니다.

[김행숙] 연애편지를 쓰자

어둠을 동그랗게 올려낸
스탠드 불빛 아래서
꿈결처럼
너도 언젠가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옛날 연애편지를 쓰자

이 연애편지에서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밤바다의 등대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매우 어려운 것을
꿈꾸는 눈동자나
노래하는 심장과 함께
그때 우리는 열렬해
외롭기도 해

그랬지, 나는 오래전에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 두드리다
갔지

세계 두드렸으면 유리창쯤 깨졌을 텐데……
피도 봤겠지
너 도 봤겠지
오버 over 하는 건 연애의 본질일까, 실수일까

지우개는 아직 하얗고
밤중에 밀려나오는 지우개 가루는 검다
모래로 쓴 글씨처럼
애써 지울 필요도 없어!
우리는
내일 또 지워진 후에 아주 옛날식 연애편지를 쓰자

[강은교] 꽤 큰 사진 한 장

내 책장 한구석에는 한 여자와 남자가 아주 다정히 서 있는
꽤 큰 사진 한 장이 있지
황금 칠이 벗어진 갈색 나무틀에
그 여자와 그 남자는 환히 웃으며 껴안고 있어
배경으로는 어느 왕조 궁궐의 담과 긴 머리카락 출렁이며 있는 큰 나무,
태양의 입술이 구름을 핥고 있어

태양은 말하는 것 같아,
사랑의 기쁨이 나타났어요
옆 에서 사랑의 슬픔이 살짝 기대는군요
사랑의 기쁨이 말을 꺼내니
옆에서 사랑의 슬픔이 대답하는군요

그러다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사진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 꼭 껴안은 바람이 그 뒤로 달려나가고 있어,
빗방울도 마약 뒤따라 달려왔지, 그들은 빗방울을 마셨어, 달콤하디 달콤한 그것, 미래의 설탕이 들어
있는 그것, 과거의 쫄코렛이 흠뻑 발라진,

나는 당신이에요
떠나가는 당신이에요
떠나간 당신이에요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구름에서는 미래가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야
지나간 미래가
지나간 과거의 허리가

[마종기] 호두 까기

어제 내가 당신을 간절히 안았듯
오늘은 당신이 안아주세요.

딱딱한 껍질은 언제나
근엄하고 정확하지만
일상의 화장을 벗어버리면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러운지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로운지.

역사의 주름살은 도도하게 어둡고
시간은 피와 살을 빠르게 지나갈 뿐,
타성을 깨는 아픔을 참아내는 것만이
당신과 나 사이의 우주입니다.

겨울 그림자는 늘 수상하고
두렵고 길고 출기만 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나를 안아주세요.
내일은 내가 두 무릎 꿇겠습니다.

[정끝별] 강그라 가르추

한밤을 가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흰 밤을 맨발로 달려가자 모든 죄를 싣고
검은 야크의 눈에 서른 개의 달을 싣고

강그라 가르추를 가자 가다 갇히면
덧창문 안으로 강된장을 꿰이며 몇 날 며칠
오랜 슬픔에 씨앗만 해진 두 입술로
뭉쳐진 밥알을 나누며 숨죽이며 가자

얼음 냄새 뱀 발꿈치를 어루만지며
몇 날 며칠을 가자 버리고 도망 온 것들이
가랑가랑 뜨물처럼 같았는 꿈에서야
눈보라에 튼 붉은 뺨을 씻으며

처마 밑 고드름 녹는 소리에
겨울 순무의 푸른 귀가 돌는 곳으로
가자 도망 온 것들이 그리워지는 곳으로
가까스로 도망 온 도망갈 곳으로 가자

강그라지듯 가자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너라는 천산산맥 너라는 만년설산을 넘어
가도 가도 강그라 가르추를 다시 넘어

[진은영] 어떤 보병

글자의 사막을 지나
도시들의 시궁창을 지나
별과 얼음 녹은 진창길을 지나

봄
여름
가을

너덜거리고 찢어진 마음의 끝단이
검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어느 장화 속으로
몰래
기어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기 싫어
밤새 알지 못하는 어느 주홍빛 막사 앞에서
나는 보초를 섰습니다

흙뻑 젖은 외투 위로
가벼운 밤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송재학] 죽은 사람도 늙어간다

올 어머니 매년 사진관에 다녀오신다
그곳에서 아버지 늙어가시니
어머니 미간의 지층을 뜯어내면
지척지간 아버지 주름이다
굵은 연필이라면 머리카락 몇 올 아버지 살쩍에 옮겨
늙은 목탄팡으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다지
그때마다 깃 넓은 신사복은 찢그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림자처럼 늙으신다
하, 두 분은 인중 닮은 이복남매 같기도 하고
오누이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고민은 할미의 얼굴로
어떻게 젊은 남편을 만나느냐는 것이지만
하, 이별의 눈과 입도 한 사십 년쯤 되면
다정다감하거나
달아버리고
걱정하면서도
설렌다,
라고 되묻는 식솔들이 생기나 보다
집이 생긴 별의 식솔들도 따라오나 보다

[고은] 사랑은 사랑의 부족不足입니다

오뉴월인가요
석곡대 석곡 꽃송이 피어왔습니다
더 가노라면
잔 어수리 흰 꽃들 피어왔습니다

이런 날인데요
해설피
바람 을스산스럽습니다

이제야 가만히 알아버렸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부족입니다
사랑은 자못
사랑의 부족입니다

나 어찌지요

수십 년 전 그날로
오늘도 나는 감히 사랑의 떨어오는 처음입니다
다리미질 못한 옷 입고
벌써 이만큼이나 선불리 나선
S 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김경주] 내 머리카락에 잠든 물결

한번은 쓰다듬고
한번은 쓸려간다

검은 모래 해변에 쓸려온 흰 고래

내가 지닌 가장 아름다운 지갑엔 고래의 향유가 흘러 있고 내가 지닌 가장 오래된 표정은 아무도 없는
해변의 녹슨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씹어 먹던 사과와 맛

방 안에 누워 그대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려주면 그대의 손가락 사이로 파도 소리가 난다 나는 그대의
손바닥에 가라앉는 고래의 표정으로 숨쉬는 법을 처음 배우는 머리카락들, 해변에 누워 있는데 내가 지닌
가장 쓸쓸한 지갑에서 부드러운 고래 두 마리 흘러나온다 감은 눈이 감은 눈으로 와 비빈다 서로의
해안을 열고 들어가 물거품을 일으킨다

어떤 적요는
누군가의 음모마저도 사랑하고 싶다

그 깊은 음모에도 내 입술은 달아 있어
이번 생은 머리칼을 지갑에 나누어 가지지만
마중 나가는 일에는
질 식하지 않기로

해변으로 떠내려온 물색의 별자리가 휘고 있다

[이진명] 노예

처박힌다
사랑은
노예처럼

코로 쉬는 숨을 잊어버리고
손가락 발가락으로 숨쉰다
손 바닥으로 발뒤꿈치로 숨쉰다

뒤통수로 보고
등으로 만진다
머리카락으로 듣고
발 바닥으로 말한다

입이 걷고 눈이 뿜다
귀는 달린다
그럴 때 정강이가 숨을 들이쉬고
팔뚝이 숨을 내뿜는다

처박힌 사랑은
노예처럼
불타는 심장을 이고 지고 메고
부동켜안고

온 동네방네를 태우는 말도 안 되는
검둥이 검둥이 살껍질에는
검은 기름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사랑은
검둥이 노예
모욕처럼 짚풀더미에 처박힌다

[심보선] 잃어버린 선물

이별은 다른 별에서 온 전언
매일매일 죽는 우리에게 대한

그 러나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만한 죽음은 항상 맨 나중 것이기에
네게서 받은 이상한 선물
다른 별에서는 사랑스런 생물이었고
이 별에서는 무서운 사물이었던
그것을 무어라 불러야 했을까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름도 없어 처량한 그것을
어느 날 밤에
무심코 떨어지는 유성
십 년 전에 멈춘 시계
내 손이 앉았다 떠난 어깨
먼 외계에서 멸망하고 있는 그것들이
길고 낮게 숨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들으면서 흐느껴 운 적이 있다

[길상호] 그 밤에 내린 눈은

유리에 닿아도 지문 남지 않는 손가락이었어, 무슨 말인지 단서가 없는 수화를 읽어낼 수 없었어, 밤이 이불 끌어 덮으며 더 깊이 잠들 때 너도 답답해져서는, 수없는 문장들을 한꺼번에 쏟아놓기도 했어, 영하의 눈금보다 추워질까 창은 열지 못했지, 말을 걸면 뿌옇게 김이 서리는 대화, 서로 다른 온도의 이야기가 유리를 사이에 두고 한동안 계속되었어, 말들이 성으로 꽃필 때까지 방과 밖의 수은주 그래프는 간격을 벌렸어, 더는 좁힐 수 없는 거리에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바닥에 누웠지, 따뜻한 바닥에서 내 심장에 살얼음 끼는 동안 너의 심장은 차가운 바닥에 녹아버렸을까, 바람벽 뚫고 들어온 바람이 전하는 안부 속에도 이제는 네가 사라졌어

[손택수] 모과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던 모과를 주워왔다
올 겨울엔 모과차를 마시리라,
잡화꾸레에 걸려 쿨룩이는 겨울을 다스려보리라
도마에 올려놓고 짹 모과를 쪼개는데
잘 익은 속살 속에서
애벌레가 꾸물거리며 기어나온다
모과 속살처럼 노래진 애벌레가
단잠을 깨고 우는 아이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애 벌레에게 모과는 인큐베이터 같은 것
눈 내리는 겨울밤
어미 대신 자장가를 불러줄 유모의 품과 같은 것
이미 쪼개버린 모과를 다시 붙여놓을 수도 없고,
이 쌀쌀한 철에 애벌레를 업동이처럼 내다버릴 수도 없고
내가 언제부터 이깃 애벌레 한 마리를 두고 심란해 했던가
올 겨울 나는 기필코 모과차를 마시리라,
짐짓 무심하게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 직도 책장 어딘가에 애벌레처럼 웅크린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놓쳐버린 아기의 태기를 놓지 못하고 있는 모과
속을 드러낸 거죽에 검은 주근깨가 송송하다
수술실에서 나올 때 흐느끼는 내 어깨를 말없이 안아주던 너
칼자국 지나간 몸 더 거칠어가는 줄 모르고
바깥으로만 바깥으로만 떠돌던 날들이 있었는데
날을 세운 불빛에 움찔거리는 애벌레처럼 허둥거리는 한때
빈속에 쟁인 울음이 아리디 아린 향을 타고 흘러나온다

[이병률] 봉지밥

봉지밥을 싸던 시절이 있었지요
담을 데가 없던 시절이었지요
주머니에도 가방에도 넣고
가슴팍에도 품었지만
어떻게든 식는 밥이었지요

남 몰래 먹느라 까실했으나
잘 뭉쳐 당당히 먹으면 힘도 되는 밥이었지요

고파서 손이 가는 것이 있지요
사랑이지요
담을 데 없어 봉지에 담지요
담아도 종일 불안을 들고 다니는 것 같지요

놀리면 터지고
비우지 않으면 시금시금 변해버리는
이 래저래 안쓰러운 감정의 형편이지요

다 비운 봉지를 뒤집어
밥풀을 떼어먹느라 봉지 안쪽을 받치고 있는 손바닥은
사랑을 다 발라낸 뼈처럼
도무지 알 길 없다는 표정으로 말갈지요

정해진 봉지에
더 비우거나 채워야 할 부피는 무엇인지요
눈발이 닥치더라도 고프게 받아
잘 뭉쳐놓으라는 이 요구는 무엇인지요

바람이 빈 봉지를 채간다고
사랑 하나를 치웠다 할 수 있는지요

봉지를 끌고 가는
이 바람의 방향을 외면하는 것으로
사랑 하나 비웠다 할 수 있는지요

[박남철] 서울의 사글셋방에서 사시는 우리 어머니님

올해 우리 나이로 일흔여섯이신 어머니님,
아직도 봉지봉지 약봉지들을 옆에
끼고 사실 것이 뻔하신 우리 어머니님,

지난 9월 25일, 비 약간 오다 말다 하던 날,
중계 4동 133-11호의, 'B29호'가 아닌 'B02호'로,
'구능치성 6길'가에 있는 3층집의 반지하방으로

어머니님의 영정도 함께 따라서 이사를 오셨다.

이혼을 하고서, 아들한테서도 '드러내놓기도 싫은 아버지'로
버림을 받고서, 신용불량자이기도 하다는, 어느덧,
의료급여대상자이기도 하다는 나,

혹은 '뻔뻔스러운 전과자'이기도 하다는 나, 바로 그대여.

어느 날, ("음력 9월 14일!"),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사먹으러 나갔다가, 무당들이 삶은 소머리를 삼지창에다
꽂아 들고서, '나라굿판'을 벌이고 있던

'구능치성터九能致誠址'를 발견하기도 했었다는 그대여.

그때, 그대의 어머니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철아, 이 새집에서부터는 제발 방을 좀 깔끔하게
청소를 좀 하면서 살아보도록 하거라!"

그때, 그대는 선선히 바로 대답을 해올려 드렸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대의 어머니께서는 다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다.
"철아, 이 새집에서부터는 '임플란트'도 잘 해내고 건강도 좀
잘 챙겨가면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거라!"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그렇게,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바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대는 다시, 순순히, 선선히, 마치 착한 어린 아들처럼;
바로 대답을 해올려 드렸었다는 것이다.

불암산 샷갯봉 위에는 달이 진짜로, 두리둥실, 떠올라 있었는데,
그대는 오십대 후반의, 진짜로, 초짜 중늬은이가 되어, '구능치성 6길'의
비탈길을, 허위허위, 마치 암벽등반이나 해대듯이,

기어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때,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나무 엄마, 맘마, 어무이, 어머니님 보살 마하살!)

[이재무] 출구가 없다

사람아, 사람아,

통발에 든 물고기같이

평생을 수인으로 살다가

죽어서야 자유로운 사람아,

늦가을 빈 밭

홀로 남은 수수깡처럼

깡말라 수척해진 영혼아,

사람 안에 갇혀

출구를 잃어버린 사람아,

탕진의 세월 속

황홀한 고통을 앓는 사람아,

[김기택] 웃음이 걸어오고 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네가 걸어오고 있다

웃음을 가득 담은

작은 눈 작은 입 작은 얼굴이 오고 있다

작은 얼굴에 꼭 맞는

이 없는 웃음이 오고 있다

삶이 다 들어가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얼굴

작은 팔 작은 다리가 오고 있다

그 팔다리에 꼭 맞는 옷과 신발이 오고 있다

지금 내게 오고 있는 웃음은

얼마 전까지 다른 얼굴이 웃었던 웃음

있는 힘을 다해 눈물을 삼키던 얼굴이 웃었던 웃음

아기 얼굴 속에서 겨우 웃음만 남은 네가
옛 친구를 알아보았다는 듯이
죽은 후 처음이라 너무나 반갑다는 듯이 웃으며
한때 이 세상에서 얼굴을 가졌던 이들의 모든 웃음을
작은 얼굴에 다 담아 웃으며
아장아장 나에게 걸어오고 있다

네 죽음을 따라 함께 화장되었던 웃음이
환한 아기 얼굴을 새 옷처럼 입고
뒤뚱뒤뚱 나에게 걸어오고 있다

[안현미] 합체

우주 체험을 한 뒤에 전과 똑같은 인간일 수는 없다.-슈와이카트(우주비행사)

하루 종일 분홍눈이 내렸다
세로도 가로도 없는 그 공간을 '방'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우주'라는 말을 발견했다

그 후 우리는 '하나는 많고 둘은 부족한' 별에 착륙했고
중력은 희박했고 궤도를 이탈한 계절은 랜덤으로 찾아왔다
어제는 겨울 오늘은 여름 낮에는 가을 밤에는 봄

우리는 당황했지만 즐거웠고 우리는 은밀했다
이상했지만 세계는 완벽했고 중력은 충분히 희박했다
검색창 밖으론 하루 종일 푹푹 분홍눈이 내렸고

하루 종일 우주선처럼 둥둥 떠다녔다
사랑과 합체한 사랑은,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후 '하나는 많고 둘은 부족한' 별의 거북무덤엔 이렇게 기록되었다

사랑을 체험한 뒤엔 전과 똑같은 인간일 수는 없다!

[문인수] 그림다는 말의 긴 팔

그대는 지금 그 나라의 강변을 걷는다 하네.
작은 어깨가 나비처럼 반짝이겠네.
뒷모습으로도 내게로 오는 듯 눈에 밟혀서
마음은 또 먼 통화 중에 긴 팔을 내미네.
그러나 다만 바람 아래 바람 아래 물결,
그림다는 말은 만 리 밖 그 강물에 끝없네.

[하종오] 결혼의 가족사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중매결혼하여 자식들 낳았다
자식 났 때마다 정말로 사랑했을까
자식 낳지 않을 때도
서로 더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밀고 당기느라 큼, 큼, 거리며
품을 주었을까 등을 돌렸을까

우리 부부는
연애결혼하여 자식들 낳았다
자식 났 때마다 정말로 사랑했다
자식 낳지 않을 때도
서로 더 사랑한다면
마음을 밀고 당기느라 후, 후, 거리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발을 포개기도 했다

우리 아들은 중매결혼할까
우리 딸은 연애결혼할까
혼인 적령기에 접어들면서도
아직 배냇짓을 하며
어미하고 아비하고 깔깔, 깔깔, 거리면서
번갈아 마음을 밀고 당기는 아들 딸,
참사랑할 상대를 구하지 않는다
치사랑 내리사랑을 더 나누고 싶어서일까

[신용목] 공터의 달리기

오늘은 당신 마음을 말아주고 계주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사람이 두 번째 눈사람에게 두 번째 눈사람이 세 번째 눈사람에게. 결승점을 통과하면 쓰러져 엉엉 울겠습니다. 서로 키를 바꾸며 서로 표정을 바꾸며 서로 그림자를 바꾸며. 오늘 당신 마음은 따사합니다—달궀진 불판처럼. 오늘 당신 마음은 붉습니다—불판의 고기처럼. 한 점 불덩어리를 삼키고 죽음이 살찌는 한낮. 뜨거워 뜨거워 뜨겁게 달리겠습니다. 기꺼이 먼 석양 붉은 물살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도 오직, 여백인 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돌고 나면 겨울은 공터만 남겠지요. 트로피처럼 바닥에 놓인 검은 모자와

[윤제림] 아무렇지도 않게

칠 년 만에 다시 한방이다,
좁고 낮고 좁고 어두운 방이지만.

나는 저 남녀가 떠나온 곳을 안다.
낮선 방에

정 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란히 누워
지금 막 잠에 떨어진
저 몸뚱이뿐인 남자와 여자의 이름도 안다.
성만 밝혀두자.
'경주 최 씨와 김해 김 씨.'

굳이 따지자면 김 씨가 더 멀리 걸어왔다.
더 많은 여관과 술집과
시장과 의자의 거리를
여자 혼자서.

그렇지만,
정물靜物은 어디 쉬운가.

“Don't disturb!”

[박후기] 꽃기침

꽃이 필 때
목련은 몸살을 앓는다
기침할 때마다
가 지 끝 입 부르튼 꽃봉오리
팍팍, 터진다

처음 당신을 만졌을 때
당신 살갓에 돋던 소름을
나 는 기억한다
징그럽게 눈뜨던
소름은 꽃이 되고
앞이 되고 다시 그늘이 되어
내 끓는 청춘의
이마를 짊어주곤 했다

떨림이 없었다면
꽃은 피지 못했을 것이다
떨림이 없었다면
사랑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떨림이 마음을 흔들지 못할 때,
한 시절 서로 끌어안고 살던 꽃잎들
시든 사랑 앞에서
툭, 툭, 나락으로 떨어진다

피고 지는 꽃들이
하얗게 몸살을 앓는 봄밤,
목련의 등에 살며시 귀를 대면

아픈 기침 소리가 들려온다

[김소연] 투명해지는 육체

月,
당신은 장을 보러 나갔다
잘게 썰린 해파리를 사와서 찬물로 씻었다
베란다에선 파꽃이 피었고
달팽이는 그 위에 등글게 앉아 있었다

火,
당신은 나를
차마 깨우지 못했다
뺨리를 틀고 잠든 나의 테두리를
동그랗게 에워싸며
조용히 다가와
다시 누웠다

水,
당신은 기차를 탔다 덜컹이기 위해서
창문에 이마를 대고 매몰차게 지나가는 바깥풍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는 욕상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귀를 깃발처럼 높이 매달았다
여린 기차 소리가 들렸다

木,
사랑을 호명할 때 우리는 거기에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나운 짐승이 되어 있었다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초식동물이 되어 있었다
두려움에 떨었다
당신의 떨림과 나의 떨림 사이에서
시뻘건 피가 흘렀다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들이 응혈처럼
물경 만져졌다

金,
내가 집을 나간 사이 당신은
혼자 힘으로 여러 번 죽고 여러 번 다시 태어났다
꽃들도 여러 번 피었다 졌다
당신이 서성인 발자국들이 보였다
무수히 겹쳐 있어 수많은 사람이
다녀간 흔적과도 같았다

밥 냄새 꽃 냄새 빨래 냄새가

지독하게 흥건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돌아온 집도 그랬을 거야
당신은 빨래를 개며 말했다

土,
우리라는 자명한 실패를 당신은 사랑이라 호명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서서 모독이라 다시
불렀다 세상 모든 몫쓸 것들이 쓸모를 다해 다감함을 부른다 당신의 다정함은 깃바퀴를 돌다 몸 안으로
흘러들고 나는 파먹히기를 바란다고 일기에 쓴다 파먹히는 통증 따윈 없을 거라 적는다 일기장을 펼칠
때마다 일생 동안 지었던 죄들이 책상 위에

수
북
하
개
쏟아져 내렸다

日,
우리는 주고받은 편지들을 접어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양 날개에 빼곡했던 글자들이 첫눈처럼 흩날려 떨어졌다

다시 月,
당신은 장을 보러 나간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현관문 바깥쪽에 등을 기대 채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울다 들어올 수도 있다
어쩐거나 파꽃은 피고
달팽이도 제 눈물로 점액질을 만들어
따갑고 둥근 파꽃의 표면을
일보 일보 가고 있다
냉장고처럼 나는 단정하게 서서
속엿것들이 환해지고 서늘해지길
기다리는 중이다

[이승훈] 사랑

그대 덩석 깨물고 싶은 저녁도 있고
덩석 안고 싶은 저녁도 있고
덩석 먹고 싶은 저녁도 있지

덩석 주저앉고 싶은 저녁
그대 덩석 움켜쥐고 도망가고 싶은 저녁
그대 덩석 깨물고 싶은 저녁

그러나 언제나 그대 손 흔들고 떠나네

[최영미] 사계절의 꿈

어떤 꿈은 나이를 먹지 않고
봄이 오는 창가에 엉겨붙는다
땅 위에서든 바다에서든
그의 옆에서 달리고픈
나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꿈은 멍청해서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지

어떤 꿈은 은밀해서
호주머니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는데
나른한 공기에 들떠 뛰쳐나온다
살- 아- 있- 다- 고,

어떤 꿈은 달콤해서
여름날의 아이스크림처럼
입에 대자마자 사르르 녹았지

어떤 꿈은 우리보다 빨리 늙어서,
가을바람이 불기도 전에
무엇을 포기했는지 나는 잊었다

어떤 꿈은 나약해서
담배연기처럼 타올랐다 금방 꺼졌지
겨울나무에 제 이름을 새기지도 못하고

이루지 못할 소원은 붙잡지도 않아
잠들기도 두렵고
깨어나기도 두렵지만,
계절이 바뀌면 아직도 가슴이 시러

봄날의 꿈을 가을에 고치지 못할지라도...

[황학주] 노랑꼬리 연

노랑꼬리 달린 연을 안고
기차로 퇴근을 한다 그것은 흘러내린 별이었던 것 같다
때론 발등 근처에 한참을 있었던 것 같다
사랑은 손을 내밀 때 고개를 수그리는 것이니까
길에 떨어진 거친 숨소리가 깜박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다
아물면서도 가고 덧나면서도 가는 밤에 우리는 부끄러웠을라나
그런 밤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야 할지
네게 물어도 될 것 같았다

도착하고 있거나 잠시 후에 발차하는
기차에 같이 있고 싶었다
내 퇴근은 날마다 멀고 살이 아파
노랑꼬리 연이 필요했던 것이고
어디에 있든 너를 지나칠 수 없는 기차로 갔던 것 같다
너의 말 한마디에 하늘을 날 수 있는 뗏살이 내 가슴에도 생겼다
꼬리를 자르면서라도 사랑은 네게 가야 했으니까
그것은 막막한 입맞춤 위를 기어오르는 별이었던 것 같다
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은
오래오래 기억하다 해발 가장 높은 추전역 같은 데 내려주어야 한다

바람이 분다
지금은 사랑하기에 안 좋은 시절
바람 속으로 또다시 바람이 분다
지금은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

네게로 가는 별, 뗏살 하나에 온몸 의지한
노랑꼬리 연 하나 바람 위로 떠오른다

[유안진] 서귀포西歸浦, 동쪽으로 가요

해와 달을 따라가다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서
돌아서 가요
해가 돌아가는
달이 돌아가는
그 대가 돌아가는
서쪽
도대체 돌아가는 길은 왜들 서쪽인가요
해 지고 달 지는 거기가
해와 달이 떠오르는 거기라서
그대도 나에게
해로 달로 떠오르나요

가도 가도 줄곧 달아나는 서쪽
으로, 가고 있는 그대에게 닿으려면
동쪽으로 가는 게 질러가는 거라고
지 구는 둥글어서
가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될 테니까요.

[김민정] 병어리...장갑

사랑할 때 우리의 입은 늘 한목소리였다. 사랑할 때 우리의 손은 늘 한 손깍지였다. 그로부터 병어리장갑 한 짝이 내 것이라 배달되었을 때 나의 두 심장은 박수 치는 심벌즈처럼 골 때리는 콤비였다. 이는 내

것이 아니었으므로 아나 개야, 개나 물어뜯을 놀잇감 준비하느라 오래도록 당신 참 수고하셨겠다, 죽어라
그니까 개 즐라고.

[김용택] 새들이 조용할 때

어제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립고, 그리고
바람이 불었지요.
하얗게 뒤집어진 참나무 이파리들이
강기슭이 환하게
산을 넘어왔습니다.
그대를 생각하면
단이 닳아진 산자락들이 내려와
내 마당을 쓸고
돌아갑니다.
당신을 사랑했지요.
평생을 가지고 내게 오던, 오! 그 고운 손길
내 등 뒤로 돌아왔지요
풀밭을 보았지요.
풀이 되어 바람 위에 눕고
꽃 잎처럼, 날아가는 바람을 붙잡았지요.
온몸이 다 꽃이 되었지요.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사랑하기까지
내가 머문 마을에는
닭이 울고
나는 수도 없이
그대에게 가는 길을 만들어
아침을, 저문 날을
걸었지요.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바람이 부는데
사랑한다고 전할까요.
해는 지는데
새들이 조용할 때
물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리고
당신이 한없이 그리웠습니다.
사랑은
어제처럼
또 오늘입니다.
여울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을 만들고
오늘도 강가에 나앉아
나는 내 젖은 발을 들여다봅니다.

[김종길] 그것들

친손 남매와
외손 남매가 다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에 가 있으니

그것들은 다
멀리 하늘가에
살고 있는 셈이다.

우리 두 늙은이는 아침저녁으로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그 것들을 그리워한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니
더욱 그것들이
그리워진다.

[문태준] 섬

조용하여라,
저 가슴
꽃 그림자는 물속에 내렸다
누구도 캐내지 않는 바위처럼
두 손을
한가운데에
모으고
누구든 외로워라,
매양
사랑을 묵상하는
저 섬은

[조용미] 봄, 양화소록

올봄 하릴없어 옥매 두 그루 심었습니다

꽃 필 때 보자는 헛된 약속 같은 것이 없는 봄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군요

내 사는 곳 근처 개울가의 복사꽃 활짝 피어 봄빛 어지러운데 당신은 잘 지내나요

나를 내내 붙들고 있는 꽃 핀 복숭아나무는 흰 나비까지 불러들입니다

당신은 잘 지냅니다

복사꽃이 지는데 당신은 잘 지냅니다 봄날이 가는데 당신은 잘 지냅니다

아슬아슬 잘 지냅니다

가는 봄 휘영하여 흥매 두 그루 또 심어봅니다 나의 뜰에 매화 가득하겠습니다

[신달자] 그 사람은

예고 없던 바람이 폭동처럼 크게 어깨를 털고 지나간 뒤에
과 수밭에는 과일이 우수수 떨어지고
제법 큰 나무들이 허리가 부러진 채 거리에 드러눕고
자동차들 기우뚱 날 듯 비틀거리고
우 지끈 부실한 지붕들이 미끄러져내리고
날리고 뒤집히고 찢기고 꼬이고 깨지고
그렇고
도리 없이 세상은 온통 이별로 낭자하고
땅에 것들 허공으로 치솟아 난동을 부리며 갈 곳 없고
떨어져내려도 제자리가 없고
자리이동을 하여 모양 또한 일그러졌고
그러하지만 나는 알고 알고 있고
오직 사람 하나 꿈쩍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젊은 얼굴로 웃고 있고
그 대로 변함없고
내 사랑으로 치면 폭동의 바람쯤이야 그럼 그쯤이야...

[이정록] 도깨비기둥

당신을 만나기 전엔,
강물과 강물이 만나는 두물머리나 두내받이, 그 물굽이쯤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피가 쏠린다는 말, 배냇니에 씹히는 세상 어미들의 젓꼭지쯤으로만 알았어요.
바람이 든다는 말, 장다리꽃대로 빠져나간 무의 송송한 가슴 정도로만 알았어요.

당신을 만난 뒤에야, 한밤
강줄기 하나가 찡찡 언 발을 떼어내며 달려오다가, 또 다른 강물의 얼음 진군進軍과 맞닥뜨릴 때!
그 자리, 그 상아빛, 그 솟구침, 그 얼음울음, 그 빠개짐을 알게 되었지요.

당신을 만나기 전엔,
얼어붙는다는 말이 뒷골목이나 군인들의 말인 줄만 알았지요. 불기둥만이 사랑인 줄 알았지요.

마지막 솜통을 맞대고 강물 깊이 쇄빙선碎氷船을 처박은 자리, 흰 뼈울음이 얼음기둥으로 솟구쳤지요.
당신을 만난 뒤에야,

그게 바로 도깨비기둥이란 걸 알았지요. 열 길 물 속보다 깊은
한 길 마음만이 주춧돌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강물은 흐르는 게 아니라 쏘리는 것임을.

알았지요, 다 얼어버렸다는 것은 함께 가겠다는 것.
금강金剛기둥으로 지은 울음 한 채, 먼 하늘주소까지.

[장석남] 뺨의 도둑

나는 그녀의 분홍 뺨에 난 창을 열고 손을 넣어 자물쇠를 풀고 땅거미와 함께 들어가 가슴을 훔치고
심장을 훔치고 허벅지와 도톰한 아랫배를 훔치고 불두덩을 훔치고 간과 허파를 훔쳤다. 허나 날이
새는데도 너무 많이 훔치는 바람에 그만 다 지고 나올 수가 없었다. 이번엔 그녀가 나의 붉은 뺨을 열고
들어왔다. 봄비처럼 그녀의 손이 쓰윽 들어왔다. 나는 두 다리가 모두 풀려 연못물이 되어 그녀의 뺨이나
비추며 고요히 고요히 파문을 기다렸다.

[천양희] 우표 한 장 붙여서

꽃 필 때 널 보내고도 나는 살아남아
창모서리에 든 봄별을 따다가 우표 한 장
붙였다 길을 가다가 우체통이 보이면
마음을 부치고 돌아서려고

내가 나인 것이 너무 무거워서 어제는
몇 정거장을 지나쳤다 내 침묵이 움직이지
않는 네 슬픔 같아 떨어진 후박잎을
우산처럼 쓰고 빗속을 지나간다 저
빗소리로 세상은 여위어가고 미움도 늙어
허리가 굽었다

꽃 질 때 널 잃고도 나는 살아남아
은사시나무 잎사귀처럼 가늘게 떨면서
쓸쓸함이 다른 쓸쓸함을 알아볼 때까지
혈한 내 저녁이 백년처럼 길었다 오늘은
누가 내 속에서 찌르르 울고 있다

마음이 궁벽해서 새벽을 불렀으나 새벽이
새, 벽이 될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
사랑은 만인의 눈을 뜨게 한 한 사람의
눈먼 자를 생각한다 누가 다른 사람
나만큼 사랑한 적 있나 누가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 있나 말해봐라
우표 한 장 붙여서 부친 적 있나